

〈일반논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지식인 개조운동과 역사학자들

김 은 수 *

〈목차〉

- I. 서론
- II. '政治教育運動'과 社會發展史 教育
- III. '知識分子改造運動'
- IV. 歷史學者들의 改造運動
- V. 결론

[국문초록]

中國共產黨은 中華人民共和國建國 무렵부터, 중국의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新型知識分子를 양성하고자 했다. 그들은 蘇聯의 경험에 따라서 1949년부터 195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知識分子를 개조하기 위한 運動을 했다. 필자는 그 가운데에서 '政治教育運動'과 '知識分子改造運動'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 그것이 上海復旦大學의 역사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知識分子改造運動'에서 역사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中國共產黨은 社會發展史에 근거해서 공산당정권 수립의 정당성을 역설했고, 階級鬭爭史에 입각해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인민들을 동원했다. 동시에 운동은 기존 지식인들을 혁명사상의 제조자이자 충실한 대변인

*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조교수

으로 만들고, 새로운 知識分子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개편의 준비작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역사학자들은 강요된 자아비판으로 스스로 비하했고, 공개적인 대중비판과 여론에 의한 감정적 공격을 받으면서 지식인으로서의 독립정신을 상실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자의반타의반으로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

□ 주제어

社會發展史, 政治教育運動, 知識分子改造運動, 毛澤東, 艾思奇, 周恩來, 胡喬木, 周谷城, 胡厚宣, 朱激, 復旦大學

I. 서론

1949년 9월 중국공산당은 중국 전역의 장악을 눈앞에 두고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를 개최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방향을 결정했다. 1949년 9월 29일 통과된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의 「共同綱領」 제5장 ‘文化教育政策’ 제41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中華人民共和國의 문화교육은 신민주주의적으로 곧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 문화교육이다. 인민정부의 문화교육공작은 인민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건설인재를 배양하며, 봉건적·매판적·파시스트주의적 사상을 제거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상의 발전을 주요 임무로 한다.”¹⁾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중국공산당의 知識分子 政策은 이 문화교육정책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

1)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1949.9.29), 『建設以來重要文獻選編』 1,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2, 10~11쪽.

중국공산당은 1939년 12월 1일에 毛澤東이 기초한 「關於吸收知識分子的決定」에서 처음으로 중국혁명의 성공을 위해 지식인을 흡수하고 이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知識分子政策을 제시했다.²⁾ 1948년 후반기에 정권 장악의 기대가 높아지자, 이들은 기성당원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을 강조하고, 華北에 馬列學院이라는 고급 黨校를 설립해서 노동자와 농민 출신으로 중국의 혁명과 건설에 절박하게 필요한 新型的 지식분자를 양성했다.³⁾ 동시에 중국공산당은 소련의 경험⁴⁾에 입각해서 1949년부터 195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기성 지식인과 기술전문가를 장악하고 개조하기 위한 정치훈련의 일환으로 대학교수들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학습과 선전운동을 전개했다.⁵⁾ 그 결과 20세기 전반기 중국 학술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른바 '부르주아 학술사상'은 주도권을 상실했고,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학술사상계의 지도지위를 확립했다. 그리고 '구중국' 출신의 지식인 집단은 대부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해서 연구 활동을 재개했다.⁶⁾

중국공산당은 역사학이 사회발전역사에 대한 과학적 결론에 입각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공산정권의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인민들을 능동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전수

2) 陳至立 主編, 『中國共產黨建設史』, 上海人民出版社, 1991, 375~377쪽.

3) 李曙新, 『中國共產黨理論探索成果研究(1949-1978)』, 北京: 中共黨史, 2008, 173~174쪽.

4) 실라 피츠패트릭, 고헤일 옮김, 『러시아혁명, 1917-1938』, 서울: 사계절, 2017, 192, 254~258쪽.

5) 周恩來, 「《新民主主義的共同綱領》草案初稿」(1949.8.22.), 『建國以來周恩來文稿』 1,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8, 310쪽; 周恩來, 「在全國高等教育會議上的講話」(1950.6.8.),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1, 앞의 책, 270쪽.

6) 李明山·左玉河 主編, 『當代中國學術思想史』, 鄭州: 河南大學出版社, 1999, 11쪽; 于風政, 『改造』,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2001, 4쪽; 蔣學模, 「對於俄國學術界成就的兩種估計」, 『學術月刊』 1957-12.

단이라고 간주했다. 따라서 이들은 선전공작에서 역사학을 매우 중요시 하면서 유물사관을 정착시키고 그에 입각하여 학술활동을 전개하는 역사학자를 확보하고 양성하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社會發展史 학습운동을 벌였고, 『武訓傳』 비판, ‘紅樓夢’ 연구와 胡適의 유심론(唯心主義) 비판을 전개했으며, 역사학 이론에 대한 논쟁과 중국고대사 연구와 관련한 ‘五朵金花’ 논쟁⁷⁾ 등을 진행했다. 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초기 역사학과 역사학자들의 역할과 그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써 ‘政治教育運動’과 ‘知識分子改造運動’이 기성의 역사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중국공산당이 건국 초기에 실시했던 知識分子政策 가운데에서 1949년에 시작된 ‘政治教育運動’과 그에 이어서 추진된 ‘知識分子改造運動’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평온하고 온화하며 정상적인 민주적 운동이었고,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이 학술연구에서 주도권을 확립하는데 기초를 확보했다”는 운동 초기의 중국공산당의 정통적 관점을 인정한다.⁸⁾ 둘째, 첫 번째 관점을 수정한 “구중국 출신의 지식분자들을 개조해서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지만, 부분적으로 지나치게 정치문제로 접근하여 일부 지식인들에게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었다.”는 개혁개방 이후의 주류 관점이

7) 당시 역사이론 논쟁으로는 다음 네 가지가 활발했다. 첫째, ‘아시아적 생산방식’ 논쟁, 둘째 ‘중국 봉건사회 장기지속의 원인’, 셋째,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 넷째, ‘몇 가지 구호와 관점에 대한 논쟁’ 등이 있었다. 또한 고대사를 둘러싼 다섯 가지 논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고대사분기문제 논쟁, 둘째, 봉건토지소유제 형식문제 논쟁, 셋째, 중국봉건사회농민전쟁문제의 논쟁, 넷째, 중국자본주의맹아문제의 논쟁, 다섯째, 한민족형성문제와 민족관계 문제의 논쟁.

8) 李承貴, 『20世紀中國人文社會科學方法問題』,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2001, 246~247쪽.

다.⁹⁾ 셋째, 이러한 정치운동으로 인해 중국 지식인들은 5·4운동이 부여한 독립정신을 상실했다는 비판적 입장이다.¹⁰⁾ 필자는 위 ‘운동’들이 지식인의 독립정신을 파괴했다는 관점에 동의하면서, 본고에서는 당시 기성 역사학자들이 그러한 ‘운동’에 어떻게 대응했고 그것이 역사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지성계는 5·4운동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讀書人들과 근대적인 학계에서 독립적이지 비판적 존재인 知識人이 출현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중국공산당의 ‘知識分子政策’에 의해 지식인은 계급이익에 복무하는 지식노동자를 의미하는 ‘知識分子’로 변모했다.¹¹⁾ 그 과정에서는 주체적인 수용, 기회주의적 변용, 물리적·정신적 폭력에 의한 피동적 적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마지막 경우의 사람들이 당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원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2장에서는 ‘중국해방’ 이후 중국 대륙에 잔류한 다양한 성향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적 유물론과 사회발전사를 핵심 내용의 하나로 한 ‘政治教育運動’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역사학자들은 이 운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해 기성 지식인들을 개조하고, 노농계급 출신의 새로운 知識分子들을 육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제도를 바꾸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던 ‘知識分子改造運動’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이 ‘知識分子改造運動’이 역사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上海復旦大學 역사학

9) 李明山·左玉河 主編, 위의 책, 10, 54쪽; 龐松, 『中華人民共和國史 1949-1956』, 北京: 人民出版社, 2010, 241~242쪽.

10) 于風政, 앞의 책, 630~634쪽.

11) 본고에서 ‘지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독립적인 사고방식과 객관적인 비판의식을 갖고 반항정신을 갖춘 학자를 가리키며, ‘知識分子’의 경우에는 중국공산당이나 학자 스스로 자신을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특정계층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두뇌노동자로 간주할 때 사용한다.

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려고 한다. 復旦大學 역사학과는 1919년 北京大學에 이어서 1925년 두 번째로 만들어졌고 1952년 실시된 대학 학과와 대학원 조정(院系調整) 이후 전국 역사학과의 양강 가운데 하나였다.¹²⁾ 본고는 이를 위해 復旦大學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역사학자들의 ‘운동’ 현장에서 나온 동료학자들의 발언이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는 復旦大學 역사지리학 교수 譚其驤(1911-1992)의 일기를 이용하고자 한다.¹³⁾

II. ‘政治教育運動’과 社會發展史 教育

중국공산당은 1949년 말까지 중국 전역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이전에 자신들과 관계가 없었던 엄청난 수의 지식인들을 손아귀에 넣게 되었다. 1949년까지 중국 전역에는 대학교와 전문학교 졸업생 25만 명, 중퇴자 100만 명과 함께 4만여 명의 유학생이 있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 되었을 당시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중국 대륙에 남았다. 1948년 말 국민당 정부는 北京의 각 대학에게 남쪽으로 이전하라고 했지만 저항에 부딪혔고, 胡適은 1948년 12월 핵심 지식인들을 臺灣으로 데려가자는 ‘搶救大陸學人’ 계획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1948년에 당선되었던 國立中央研究院 제1계 院士 81명 가운데 대륙에 잔류한

12) 余子道 主編, 『曠園星光 史苑流芳, 復旦大學歷史學系建系九十五周年紀念文集』,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20, 1~2쪽.

13) 葛劍雄 編, 『譚其驤日記』,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13. 필자는 당대사 연구에서 ‘일기’가 회고록이나 문사자료에 비해 지식인들의 솔직한 인식을 담아낼 개연성이 비교적 높아서 사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하주형의 견해에 동의한다. 하주형, 「지식인’에서 ‘지식 노동자’로 - 1950년대 일기에 투영된 顧頡剛 위상의 변모 - 」, 『중국근현대사연구』 89, 2021.3., 96쪽.

사람은 60명이었고, 미국으로 간 사람은 12명, 대만으로 간 사람은 9명에 불과했다.¹⁴⁾

당시 지식인들이 대륙에 남은 이유는 다양했다. 첫째,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知識分子로 郭沫若이나 茅盾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중국을 받아들인 학자와 학생들이다. 셋째, ‘정치를 묻지 않는’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넷째, 서방사상의 영향을 깊게 받아들였고 구미정치제도를 숭배하며 새로 탄생한 사회에 대해 의심을 가졌지만, 신 사회가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은 인문사회과학자들이다. 다섯째, 국민당 측에 섰던 사람들 가운데 전통적인 애국정신으로 인해 신중국을 받아들인 소수 상층지식인이다. 여섯째, 국민당과 공산당을 모두 반대했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바꿨지만 신정권이 그들에게 ‘독재’를 시행할까 두려워한 지식인들이다. 일곱째, 장기간 독립적인 정치 입장을 견지하며 사회변혁 이후에도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陳寅恪(1890-1969)과 같은 사람들이었다.¹⁵⁾

중국 대륙에 잔류한 지식인들 가운데 일부 좌파 인사들은 자신이 혁명의 승리에 얼마나 공헌했는지에 대해 회의하면서 수치심과 자비감을 밝혔다.¹⁶⁾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上海 震旦大學 교수를 담당하고 1951년부터 新文藝出版社에서 근무했던 梅林(1908-1986)은 1949년 6월 25일에 上海의 ‘解放’을 지켜보면서 “가장 추악한 반동파의 통치시기에 …… 오직 나만을 중심으로 하며 자신의 명리를 도모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

14) Alain Roux, 畢笑 譯, 『毛澤東雄關漫道』下,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4 (2009), 494~495쪽; 張浩, 『新中國成立初期中國共產黨城市工作研究 - 以北京市爲個案』, 北京: 人民出版社, 2014, 268쪽.

15) 于風政, 앞의 책, 1, 6~7, 10~15쪽.

16) 于風政, 위의 책, 25~26쪽.

던 사람이었다.”¹⁷⁾ 고 반성하였다. 文學研究會 회원이었으며 上海 復旦大學을 거쳐 1950년 7월부터 華東師大 중문과 주임으로 활동했던 許杰(1901-1993)은 해방군을 지켜보면서 “인민과 군중의 진보에 직면하여 사람은 개조할 수 있다. 나는 왜 개조될 수 없는가.”¹⁸⁾ 라고 선언했다.

정치학습을 통한 개조공작은 주로 위와 같은 좌파 인사를 포함한 다양한 층위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해서, 1949년 2월 北平이 ‘해방’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50년 하반기까지 중국 전역에서 대학교 교수를 주요대상으로 하면서 중·소학교 교사도 포함해서 전개되었다.¹⁹⁾ 당시 중국공산당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中央人民政府 政務院 아래 文化教育委員會를 설치하고 공산당에서는 中央宣傳部가 담당하도록 규정했다.²⁰⁾ 1949년 5월초 中宣部 부부장 陳伯達(1904-1989)은 5·4운동 30주년을 기념하면서 “知識分子들은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毛澤東사상의 새로운 관점과 신방법, 변증유물론과 역사유물론의 신관점과 신방법에 입각해서 모든 학술부문에 대해 새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고 비판과 자아비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²¹⁾ 毛澤東은 1949년 6월 30일 「論人民民主專政」에서 정치학습의 절박성을 강조하면서 “현 단계에서 남은 민족부르주아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교육공작을 실시하고, 사회주의를 실행하는 단계에는 그들에 대한 진일보한 교육과 개조 공작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²²⁾ 라고 천명했다. 그러자

17) 梅林, 「上海解放有感: 照明自己」, 『文匯報』, 1949.6.25.

18) 許杰, 「從今日開始」, 『文匯報』, 1949.6.21.

19) 劉少奇는 1949년 3월 2일 華北大學 졸업생 1,300여 명을 각급학교와 훈련반에 분배해서 공산당 공작에 참가하는 知識分子 등의 정치교육 임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中共中央文獻室 編, 『劉少奇年譜1898-1969』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6, 184~185쪽.

20) 龐松, 앞의 책, 230쪽.

21) 雷潔琮, 「論教育工作者思想改造」, 『新建設』 1-3.

전체 문화사상계와 사회과학 공작자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학습을 통해, 과학적 역사관점으로 역사·경제·정치·문화와 국제사무를 연구하고 해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²³⁾

1949년 9월에 들어서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이 확정적으로 되자, 당시 復旦大學 교무위원회 주임이자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을 담당했던 張志讓(1893-1978)은 ‘政治教育運動’의 지역과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줄곧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사상을 연구 학습하는 것이 현재 교육계의 첫 번째 과제라고 인정했다. 이 요구를 실현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전국적인 운동을 발동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즉각 발동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보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전국 대·중·소학의 전체 교직원과 연구교육과 기타 교육공작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²⁴⁾ 이러한 요청에 화답하여 陳伯達은 中華全國社會科學工作者代表會議籌備會 수석대표의 신분으로 全國政協會議에서 다음과 같은 ‘사상문화대혁명’의 임무를 제출했다. “중국사회과학 공작자는 인민혁명 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진리를 전파하고 國民黨 반동파 및 기타 반동파의 사상진지를 무너뜨리는 공작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혁명전선과 비교해서 사회과학 방면의 공작은 여전히 혁명의 실제와 인민의 수요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다. 우리는 반드시 노력을 배가해서 이러한 중대한 결점을 보충해야 한다.”²⁵⁾

中宣部の 지휘를 받는 教育部는 陳伯達의 경고에 따라 1949년 12월

22) 毛澤東, 「論人民民主專政」(1949.6.30.), 中國共產主義研究小組, 『毛澤東集』 10, 一山圖書供應, 1976, 302쪽.

23) 桂遵義, 『馬克思主義史學在中國』,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92, 479쪽.

24) 張志讓, 「探求新知批判利用舊學與大學教育前途」, 『新建設』 1-1, 1949.9.8.

25) 楊建新·石光樹·袁廷華 編著, 「中華全國社會科學工作者代表會議籌備會首席代表陳伯達在一屆政協全體會議上的發言」(1949.9.23.), 『五星紅旗從這里升起』, 北京: 文史資料出版社, 1984, 387~389쪽.

에 주관한 제1차 全國教育工作會議에서 1950년 상반기의 공작임무로 중국공산당이 새로 장악한 지구의 학교가 안정된 이후에 교사와 학생들에게 정치와 사상교육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론학습을 사상개조의 무기로 삼고, 사상개조의 기본은 혁명적 인생관을 확립하는 것이며, 비평과 자아비평을 정확히 운용하고, 생산노동과 군중투쟁과 결합시킬 것을 지시했다.²⁶⁾

전국교육공작회의 이후 ‘政治教育運動’의 학습조직은 더욱 엄밀해졌고 전체 교직원들은 행정소속에 따라 소조를 편성했다. ‘政治教育運動’은 자아검토와 군중비판을 특징으로 하는 사상총결의 학습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그것은 중국공산당이 延安 整風運動 시기에 완성된 당내 知識分子를 개조하는 이론, 정책과 방법을 공산당 외부의 지식인에게 처음 운용한 것이었다.

知識分子 정치학습은 다음과 같은 조직형식을 갖추었다. “첫째, 혁명 대학이나 短期培訓班에 참가한다. 둘째, 교육행정기관이 거행하는 방학 시기 연구회, 보고회, 강습반, 강습회에 참가한다. 셋째, 본 단위의 학습 소조에 참가한다.” 당시 운동의 대상이었던 전국 47만 명의 지식인 가운데 일부는 첫 번째 방식이었지만, 절대 다수의 지식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식으로 정치학습을 진행했다. 정치학습의 내용은 사적 유물론을 학습하고 노동관점과 계급관점에 입각해서 혁명적 인생관을 초보적으로 건립하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종 통일된 규정이 없었다. 시사정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소수 고급지식인의 학습조직만이 비교적 이론을 중시했다. 처음에는 자유토론이었지만, 여름 방학 이후에는 보고를 듣고 소조토론과 개인의 自學을 결합시켰다. 사상 총결의 방법은 우선 본인이

26) 錢俊瑞, 「在第一次全國教育工作會議上的總結報告要點」(1949.12.30),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1, 91~92쪽.

서면검사를 쓰고, 소조에 제출해 評定을 받고 동료와 학생을 포함한 군중의 철저한 비평을 받고, 반복검토와 반복수정을 경과하여 통과한다. 그 결과 과거의 행동이 학습활동이었다면, 이후 활동은 군중운동이 되었다. 지식인의 정치학습 활동은 처음 北平 각 대학의 당원교수, 진보교수가 공산당의 의도에 근거해서 발기했고, 교수들이 자원해서 참가했으며 어떠한 공식적인 강요도 없었다. 그러나 초기의 격정이 약화되자 수많은 학습소조는 사라졌다.²⁷⁾

한편 政治教育運動 과정에서 가장 중시된 교육내용으로는 사적 유물론(歷史唯物主義)과 社會發展史²⁸⁾가 있었다. 사적 유물론의 관점으로 역사·경제·정치·문화 및 국제사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신민주주의혁명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여부와 직접 관련되었기 때문에 당시 과학적 역사관은 학술문제이자 정치투쟁과 관련된 현실문제였다.²⁹⁾ 중국공산당의 이론가 가운데 이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로는 1947년 10월부터 馬列學院에서 사회발전사를 강의했던 艾思奇(1910-1966)가 있었다. 그는 사회발전사 학습의 목적이 “사회발전규율을 정확히 인식하고, 노동자와 생산자가 각 역사시기의 투쟁활동의 규율을 정확히 파악하며, 노동군중이 각 역사과정에서 창조 발전시킨 생산조건이 어떻게 하나의 제도를 다른 하나의 착취제도로 대체시켜 마지막에 모든 계급착취

27) 于風政, 앞의 책, 28, 31~34쪽; 張浩, 앞의 책, 237쪽.

28) 사회발전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는 중국공산당의 창립멤버이자 毛澤東 사상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설자였던 李達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신중국의 앞날을 창조하기 위해 사회발전사를 학습할 때에, 반드시 다음 5종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변증유물론의 관점이다. 둘째, 노동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계급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넷째, 균중관점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조직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李達, 『學習社會發展史』(『社會發展史, 緒論』, 1951), 『李達文集』 4, 人民出版社, 1988, 7~14, 19~27쪽.

29) 陳揚勇, 『建設新中國的藍圖 -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3, 270쪽.

제도를 소멸시키게 되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노동이 세계를 창조한다는 관점. 둘째, 사회발전규율성의 관점. 셋째, 역사주의의 관점”이라는 사회발전사의 기본 이론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³⁰⁾ 결국 사회발전사 학습은 중국공산당의 집권이 역사적 필연성을 갖고 있었으며, 공산주의 이론이 중국사회 변화를 위한 필수조건임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毛澤東은 1949년 8월 5일에 華北人民大學을 담당했던 劉瀾濤와 胡錫奎의 ‘제 1기 교육경험’ 보고를 각지에서 실천하도록 지시했다.³¹⁾ 政治教育運動의 일환으로 ‘유물사관과 사회발전사 학습’은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사회발전사 학습은 라디오 방송교육을 통한 인민교육으로 발전했다. 1950년에는 中央人民廣播電臺에서 ‘사회과학강좌’ 시리즈의 하나로 ‘사회발전사 강좌’가 이루어졌고, 上海人民廣播電臺도 1950년 5월 ‘사회발전사 강좌’를 시작해서,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 노동이 인간을 창조했다’, ‘노동이 세계를 만들다’, ‘노동군중이 역사를 창조하다’, ‘생산력과 생산관계’, ‘계급투쟁’ 등을 방송하고 군중이 제출한 문제에 답을 주었다.³²⁾

시인이자 동방예술사와 예술고고학자로 1949년 3월 인도에서 귀국하

30) 艾思奇, 「評關於社會發展問題的若干非歷史觀點」, 『北平解放報』, 1949.7.; 桂遵義, 앞의 책, 482~484쪽.

31) “우리는 歷史唯物主義를 학생들의 실제사상을 결합하는 것을 본교의 기본 교육방침으로 삼으며, 학교는 사상전쟁이나 정치공장이 되어야 한다.” “歷史唯物主義는 ‘노동이 세계를 창조한다. 계급투쟁과 국가학설, 중국혁명의 기본문제’ 등의 세 문제를 학습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毛澤東, 「毛澤東對華北人民革命大學第一期教育經驗總結的批語」(1949.8.5), 『中共中央文件選集』 18,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2, 407~409쪽.

32) 本書編輯部 選編, 『中國的廣播電台』, 北京廣播學院出版社, 1987, 9, 303쪽; 肖東波, 『新中國成立初期中國共產黨執政實踐研究(1949~1952)』,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13, 475쪽.

여 北京藝專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던 常任俠(1904-1996)의 1949년 9월부터 1951년 3월까지의 일기를 살펴보면, 한 명의 역사학자가 자기 삶의 핵심인 학습과 교육활동에서 ‘유물사관과 사회발전사 학습’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社會發展史』를 구입하고, 高教會가 개최한 唯物史觀教育會에 참가하며, 藝專 정치교학위원회 주임으로 高校 변증유물론과 歷史唯物論教學委員會와 연락하면서 ‘사회발전사’의 ‘다섯 종류의 생산양식’을 3시간 강의하고, 艾思奇的 『社會發展史講授提綱』을 구입하며, 학교 내에서 사적 유물론 교학방법을 논의하고, ‘노동이 인류세계를 창조했다’는 艾思奇的 강의를 듣고, 艾思奇가 라디오에서 강의한 다섯 종류의 생산양식 원고를 읽고” 있었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대학을 나와서 清華大學 사회학과 교수였던 吳景超(1901-1968)과 같은 구지식인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연구해서 1949년 9월에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환영을 받자, 기성 공산주의자들은 그가 거짓 마르크스·레닌주의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³⁴⁾ 공산주의 이론은 혁명 투쟁 과정에서 고생했던 중국공산당원들이 독점해야 하는 것이었다.

중선부장 陸定一(1906-1996)은 1950년 3월 ‘政治教育運動’에 대한 중간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인민문화교육사업의 건설은 반드시 각 혁명계층의 知識分子와 단결해서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구 知識分子와 기술인원에 대해 마땅히 적당한 교육을 해서 혁명을 위해 복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 주로 知識分子가 혁명적 인생관,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의 사상을 건립하도록 도와야 한다. 1949년에 20여만 명이 이 학교에 참가해서 학습을 완료한 뒤에 각종 실제공작에

33) 常任俠, 『春城紀事(1949-1952)』, 北京: 大象出版社, 2006, 64, 76, 81, 168~170, 174쪽.

34) 徐鑄成, 『徐鑄成回憶錄』, 北京: 三聯書店, 1998, 203쪽.

분배받았다.”³⁵⁾ 教育部는 ‘政治教育運動’의 성과를 대학교육과정에서 정규화하기 위해 1950년 6월에 개최된 제1차 全國高等教育會議에서, 국민당 정부가 반포했던 ‘黨義’, ‘公民’, ‘군사훈련’ 등 반동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혁명적 정치교육을 만들어서 정치경제학·신민주주의론·사회발전사 등 새로운 교과목을 학교교육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³⁶⁾

당시 대다수의 좌익 지식인은 政治教育運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좌파 역사학자로 山東大學 교수였던 趙儷生(1917-2007)은 정치학습을 통해 그의 역사관이 완전히 변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낮에 정치토론에 참가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등불아래 앉아 내 역사학을 연구할 때에 …… 나의 정치적 민감성은 일변하여 학술적 민감성이 된다. 당시에는 매우 득의만만했던 내 과거 역사저술에서 수많은 허점이 떠오르며, 반드시 처음부터 고쳐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든다.”³⁷⁾ 陳寅恪의 제자로 北京大學교수였던 汪籟(1916-1966)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중앙당교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을 받으며 공산주의 知識分子로 변화되었다.³⁸⁾

한편 대부분의 자유주의 지식인은 공식적으로는 대세에 순종하며 이 운동을 환영했다. 그러나 상당수는 내심 정치적으로 공산당을 지지하는 일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학습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上

35) 陸定一, 「新中國的教育和文化」(1950.3.19), 『陸定一文集』, 北京: 人民出版社, 1992, 421~422쪽. 선전공작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던 毛澤東은 자신의 비서였던 胡喬木을 中宣部의 부부장으로 임명하고 그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했기 때문에, 陸定一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陳淸泉·宋廣渭, 『陸定一傳』,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9, 377~378쪽.

36) 龐松, 앞의 책, 231쪽.

37) 趙儷生, 「政治學習與學術研究」, 『光明日報』, 1950.3.5.

38) 陸建東, 박한제·김형중 옮김, 『진인각, 최후의 20년』, 서울: 사계절, 2008(1995), 150~151쪽.

海와 南京 지구에서 운동에 참가한 교사 가운데 거의 절반의 사람들은 회의심과 반항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식인 가운데 陳寅恪처럼 마르크스주의를 공식적으로 거절한 사람은 드물었다.³⁹⁾ 그들은 보통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사상을 무시하며 이것은 단지 공식교조이며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학습을 거절했고, 학습에 저항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사람의 절개와 고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⁴⁰⁾ 일부 사람들은 ‘정치교육운동’에서 만들어진 ‘의식개혁 기록’들이 똑같은 형식에 따라 횡설수설한 말투로 설득력 없는 죄의식과 비굴한 자학적인 고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⁴¹⁾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改造’라는 말 자체를 듣고자 하지 않고, 정치이론학습을 국민당 통치시대의 黨義課와 동일시했다.⁴²⁾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이도 있었다. 당시 沈從文은 “과거의 중국은 씀의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信’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했다. 공산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게 된 것이었다. 그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숙고하지, 믿음으로 용감히 나아갈 수 없는” “회의주의자인 자신을 새로운 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1949년 3월 28일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다.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사회에서 버려졌고, 가족 내에서 고립되었다. 그는 견디지 못하고 ‘애국주의’·‘인민관’·‘유물론’에 입각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시대의 조류에 귀의한다.⁴³⁾

당시 지식인의 생각에 변화를 주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토지개

39) 于風政, 앞의 책, 36~37쪽.

40) 翦伯贊, 「教師學習的問題很多, 主要的還是思想問題」, 『光明日報』, 1950.8.11.

41) Wu Ningkun, 심재석 옮김, 『대륙의 눈물(A Single Tear)』 1, 서울: 고려원, 1995 (1993), 21쪽.

42) 「社論: 開展全國教師的學習運動」, 『光明日報』, 1950.8.11.

43) 첸리췌(錢理群), 연광석 옮김,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상, 서울: 한울, 2012, 58~72쪽.

혁운동의 참가였다. 毛澤東은 구 지식인들에게 계급관점을 주입하기 위해 1949년 말부터 1951년 말까지 수십만의 지식인이 토지개혁공작대원으로 참가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⁴⁴⁾ 물론 사천 眉山의 토지개혁에 참가한 北京大學 교수 周一良(1913-2001)과 같은 농촌 출신 지식인들은 자신이 사상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못했다고 회고했고,⁴⁵⁾ 일부 토지개혁운동에서는 농촌투쟁의 방식으로 지식인에게 투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래서 공산당 지도부는 많은 지식인들은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들을 제대로 개조하지 못한다고 걱정하기도 했다.⁴⁶⁾ 그러나 저명한 역사지리학자로 당시 燕京大學 역사학과 교수였던 侯仁之는 “토지개혁 가운데 자신과 노동인민의 사상 감정이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사상에 대한 철저한 개조를 해야 인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⁴⁷⁾ 또 國家出版總署 編審局 처장을 담당했던 역사학자 宋雲彬(1897-1979)은 “과거의 西湖는 대관료 대지주의 땅이었다. 내가 文人雅士로 자처하고 그곳을 찾아 승려들과 선에 대해 논의했는데, 현재 정말 창피하다. 이곳은 노동인민의 노동 결과가 아닌가. 이곳은 이제 대규모의 요양원, 문화궁을 만들어 노동인민의 대공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⁴⁸⁾ 雷海宗(1892-1962)도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독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44) 于風政, 앞의 책, 43, 46~47쪽.

45) 周一良, 『天地一書生』, 北京大學出版社, 2010, 59쪽.

46) 「中央人民政府教育部關於加強在對學校政治思想教育的領導的指示」(1950. 10.13.),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1, 앞의 책, 424쪽.

47) 楚序平·劉劍, 『當代中國重大事件實錄』, 北京: 和齡出版社, 1993, 496쪽.

48) 宋雲彬, 「西湖的春天」, 『新觀察』 2-7.

Ⅲ. ‘知識分子 改造運動’

‘政治教育運動’이 한창 진행되던 1950년 전반에 毛澤東이 제일 고민하던 문제는 새로운 세계전쟁이 발생할 것인가였다. 그는 스탈린과의 대화를 끝낸 뒤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이라는 국민당 측의 유언비어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毛澤東은 평화적인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⁴⁹⁾ 1950년 6월 6일 중국공산당 제7계 3중 전회에서 「不要四面出擊」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이해 가을 신해방구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 터인데 “이때 적들이 매우 많다.”고 지적하고, “당면한 적을 고립시키고 타격하기 위해서는 인민 가운데 우리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우리를 옹호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으며”, “知識分子에 대해서는 각종 훈련반, 군정대학, 혁명대학으로 그들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교육하고 개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⁵⁰⁾ 毛澤東은 1950년 10월 23일 소집한 全國政協 제1계 3차 회의 개막사에서 다시 한번 “각종 知識分子의 思想改造는 우리나라 각 방면에서 민주개혁을 철저히 실현하고 공업화를 점차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다.”라고 지적했다.⁵¹⁾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이 단계에서는 일반 지식인보다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던 공산당원의 정치적 각오와 사상능력의 제고에 주의를 기울였다.⁵²⁾ 劉少奇는 1951년 5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선전공작회

49) 逢先知·金冲及 主編, 『毛澤東傳(1949-1976)』 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6, 77~79쪽.

50) 毛澤東, 「不要四面出擊」(1950.6.6), 『建國以來毛澤東文稿』 1,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7, 397~400쪽.

51) 李明山·左玉河, 앞의 책, 20쪽.

52) 「中共中央關於健全各級宣傳機構和加強黨的宣傳教育工作的指示」(1951.2.25),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2,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2, 75쪽.

의에서 “당이 인민의 사상을 이끌고 反革命 유언비어, 蔣介石의 반격, 一貫道の 선전과 같은 자유주의를 반대해야 한다.”면서 인민에 대한 선전활동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중국공산당이 경제건설의 임무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정치학습을 강화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면서 당원들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본이론 선전과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⁵³⁾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신중국 성립 초기 중국공산당의 문화교육정책은 비교적 유화적이었다. 1942년 延安 정풍운동에서 毛澤東은 知識分子 사상개조의 기본원칙을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가 착오를 드러내서 결점을 비판하는 목적은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과 똑같다. 완전히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여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산당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대등한 대화자가 아니라 병자로 간주한 것이었다.⁵⁴⁾ 그러나 당시 공산당은 延安 정풍운동 방식을 당 밖에 적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마르크스주의와 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지식인들을 착각에 빠뜨렸다. 그들은 이 정책이 毛澤東의 「不要四面出擊」의 일시적인 적용에 불과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많은 경우에 한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은 뒤에는 자신의 국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일군의 지식인 집단을 양성한다. 중국공산당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知識分子를 배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시대에서 온 지식인을 이용하기 위해 혁명 정치교육을 실시했다. 중국공산당은 1951년 10월경 전국적인 ‘鎮壓反革命運動(鎮反運動)’을 어느 정도 매듭짓고 이데올로기 문제로 자신의 주의를 돌리게 되었을 때에, 문화교육계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동원될 수 없을 정도로 ‘사상혼란’에 빠져 있다고 판단

53) 劉少奇, 「黨在宣傳戰線上的任務」(1951.5.23.),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2, 300~301쪽; 陳至立 主編, 앞의 책, 694, 698쪽.

54) John Bryan Btarr, 曹志爲, 王晴波 譯, 『毛澤東的政治哲學』,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3(1979), 170쪽.

했다. 따라서 1951년 9월 「武訓傳」에 대한 비판운동이 끝나자, ‘知識分子思想改造運動’이 시작되었다.⁵⁵⁾

‘知識分子思想改造運動’은 보통 1951년 9월 7일 北京大學 교장 馬寅初(1882-1982)가 周恩來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9월 11일 자 毛澤東의 지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⁵⁶⁾ 馬寅初는 1951년 6월 1일 北京大學 교장이 되자,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교양교육에서 전문교육으로 전환시키려는 중국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 40여 일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학습을 실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⁵⁷⁾ 그는 그 대상을 직원에서 교원으로 확대하면서 “北大 교수 湯用彤(1893-1964) 등 12명이 ‘北大教員政治學習運動’을 발기했고 毛澤東 등 10명을 교사로 초빙한다.”고 편지를 보냈다. 이후 北京과 天津의 각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전개되었다.⁵⁸⁾ 이에 대해 于風政은 “北京大學의 정치학습은 정치적 의미가 없고 ‘洗澡’와 같은 격렬한 투쟁이 없었으며, 毛澤東이 ‘민간’의 자발적인 정치학습을 ‘官方’의 행위로 바꾸었다.”고 주장했다.⁵⁹⁾

그러나 ‘知識分子改造運動’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공개된 중국공산당과 공산당 지도자들의 문건을 검토해보면, 이 운동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사람은 周恩來였다. 그는 1951년 8월 22일 전국 19개 專業會議 대표와

55) 于風政, 앞의 책, 139~140, 201쪽.

56) 張靜如 主編, 『中國共產黨思想史』, 青島出版社, 1991, 439쪽; 李明山·左玉河, 앞의 책, 21쪽.

57) 王文, 「建國初期知識分子思想改造運動」, 『中共黨史資料』 66, 中共黨史出版社, 1998.6, 92~93쪽.

58) 毛澤東, 「在馬寅初關於北京大學教員政治學習問題給周恩來的信上的批語」(1951.9.11.), 『建國以來毛澤東文稿』 2,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448쪽; 吳建國·陳先奎·劉曉·楊鳳城 主編, 『當代中國意識形態風雲錄』, 北京: 警官教育出版社, 1993, 97쪽.

59) 于風政, 앞의 책, 139~140, 202~203쪽.

中央人民政府 각 부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目前形勢和任務」라는 보고에서 “知識分子는 신중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며, 사상개조는 피할 수 없다.”고 하여 知識分子의 사상개조 문제를 제기했다.⁶⁰⁾ 이후 馬寅初가 周恩來의 주장에 화답하며 北京大學의 정치학습을 요구하자, 9월 24일 周恩來는 좌담회를 소집해서 彭眞, 胡喬木 등 31명과 상의 끝에 北京은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대행정구에서도 각각 典型을 선택하여 계획적으로 정치학습에서 시작해서 조직 정리까지 4개월 동안 차근차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⁶¹⁾ 이에 北京大學를 중심으로 하고 北京과 天津의 20개 대학 교수들과 학생대표 3,000여 명을 초청해서 9월 29일에 개최된 ‘北京, 天津高等學校教師學習會’에서 이 운동이 공식화되었다. 周恩來는 학습회에서 장장 5시간 동안 계속된 연설을 통해, ‘立場, 態度,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가, 思想, 知識, 民主, 批評과 自我批評’의 7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직접 경험을 결합시키면서 운동의 기본 방침과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 知識分子가 대부분 지주계급과 부르주아지 가정 출신으로 그들에게 곧바로 프롤레타리아트 입장에 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최소한 대다수 인민의 입장에 서고,” 장기적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개조하고” “봉건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사상을 개조하라.”고 요구했다.⁶²⁾

이 강연을 들었던 역사학자이자 輔仁大學 총장이었던 陳垣은 “철저히 자신의 사상을 청산하고 착실히 학습하기 시작했다.”고 진심어린 고백

60) 金冲及 主編, 『周恩來傳』,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1074쪽.

61) 當代中國研究所 編, 『中華人民共和國史編年, 1951年卷』,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2007, 631쪽; 王炳林 等, 『學習的力量 - 中國共產黨學習活動紀實』,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4, 207, 209~210쪽.

62) 周恩來, 「關於知識分子的改造問題」(1951.9.2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周恩來文化文選』,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776~804쪽.

을 했다.⁶³⁾ 또한 중국물리학회 이사장이자 清華大學 교수였던 周培源(1902-1993)은 1991년에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고 철저하게 지식인들이 직면한 근본문제를 설명했다.”고 회고하고 있다.⁶⁴⁾ 그러나 당시 일부는 “나쁜 사람만 개조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불필요하다.” “자기 비평은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운동방식을 평가절하했다.⁶⁵⁾ 심지어 어떤 지식인은 학자들을 감시하던 안전경호원에 압도당하고, 노동자계급의 올바른 태도와 관점과 방법을 배우는 어렵고 험난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에 대한 周恩來의 경고에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⁶⁶⁾ 당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학제 개혁⁶⁷⁾에 주의를 집중했던 周恩來의 입장에서는 교수들의 반발을 경고했던 것이었다.

周恩來의 뒤를 이은 것은 毛澤東이었다. 그는 10월 23일 全國政協 제1계 3차 회의 개막사에서 과거 일년 동안 벌였던 ‘抗美援朝’, ‘토지개혁 운동’, ‘鎮反運動’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1950년 6월에 요구했던 ‘자아교육과 자아개조’를 뒤이은 ‘각 방면에서 민주개혁과 공업화를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각종 知識分子的 사상개조’ 운동을 강조했다.⁶⁸⁾ 이날부터 시작해서 『人民日報』와 『光明日報』 등에는 특집기사를 설치해서 저명한 학자들의 자아검토 문장을 게재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의 출신, 교육상황, 정치관계 등을 밝히고, 자신의 사상을 분석하고, 사상개조와 자신의 결심 등을 이야기했다.⁶⁹⁾ 중국공산당이 이 운동을

63) 陳垣, 「祝教師學習成功」, 『人民日報』, 1951.10.27.

64) 周培源, 『人民日報』, 1991.7.7.

65) 『京津高等學校教師的一些思想狀況』, 『宣傳通訊』 1951-27.

66) Wu Ningkun, 심재석 옮김, 앞의 책, 16~18쪽.

67) 「社論: 爲什麼必須改革學制」, 『人民日報』, 1951.10.3.

68) 毛澤東, 「三大運動的偉大勝利」(1951.10.23.), 『建國以來毛澤東文稿』 2, 481~483쪽.

별인 이유는 1951년 11월 30일 毛澤東의 비준을 거쳐 1951년 11월 30일 각 조직에 보낸 문건에서 명확히 제시되었다. 즉 “전국 학교가 점차 당의 지도 아래 반동의 흔적을 지우고 혁명의 순결성을 획득하며, 1-2년 내에 각급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을 개조해서 간부와 적극분자를 배양하는 것”이었다.⁷⁰⁾

한편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지식인들은 사상개조에 대해 의구심과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증공증양은 운동을 시작할 때에 개조학습의 의의와 방법을 통지했고,⁷¹⁾ 周恩來, 劉少奇, 彭眞, 胡喬木은 이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周恩來는 “학습의 목적은 자기개조이고, 인민에게 가서 학습해야 하고 지식과 실천의 결합이 필요하고, 사적 유물론에 입각해서 ‘역사주의’ 관점에 입각한 역사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자아비평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²⁾ 劉少奇는 11월 4일 人民政協 全國委員會의 1,000여명이 모인 회의에서 “延安 정풍운동 당시 ‘학습, 비평, 자아비평의 방법’으로 사상개조를 진행했다.”고 소개하고 이것을 참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毛澤東의 보고와 지정한 문건을 학습하고, 학습이 끝나면 각자 반성하고 반성노트를 쓰며 회의에서 반성을 보고하고, 소조나 회의에서는 각자의 반성에 근거해서 의견이나 비평을 제출하고 다시 본인의 답변과 재반성을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조직이 결론이나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⁷³⁾ 이어서 胡喬木이 11월 20

69) 王文, 앞의 글, 99쪽.

70) 中共中央, 「中央印發關於在學校中進行思想改造和組織清理工作的指示的通知」(1951.11.30.), 『建國以來毛澤東文稿』 2, 526~527쪽.

71) 王憲明, 「知識分子思想改造運動」, 朱育和·張勇·高敦復 主編, 『當代中國意識形態錄』,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1997, 91쪽.

72) 周恩來, 「關於知識分子的改造問題」(1951.9.29.), 777, 795, 799쪽.

73) 劉少奇, 「關於思想改造問題報告提綱」(1951.11.), 『建國以來劉少奇文稿』 3,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5, 778~784쪽.

일 毛澤東의 지시에 입각해서 思想改造의 방법으로 “첫째, 學習. 둘째, 批評과 自我批評. 셋째, 實踐.”을 제시했다.⁷⁴⁾ 운동이 시작되자 전국의 많은 지역은 胡喬木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었지만, 京津의 대학교는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학습태도를 단정히 하며, 비평과 자아비평을 전개하고, 반동사상을 비판하며 사상 면에서의 적과 아군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입장 관점을 수립하는 5단계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당시 각 학교들은 매일 한 차례씩 總學委에 전화로 보고하고 3일에 한 번 서면 보고를 올렸으며, 總學委도 각 학교에 담당자를 파견해서 상황을 점검했다.⁷⁵⁾ 또한 12월에 들어서는 華南軍區 등에서 사상개조 운동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중공중앙은 西南局의 보고에 따라 華東, 中南, 西北, 華北, 東北局에서도 적당한 시기에 대규모의 교사사상개조회의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⁷⁶⁾

그런데 ‘知識分子思想改造運動’의 2단계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三反’운동이 강화되었다. 毛澤東은 1951년 12월 31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1952년 1월 1일 오전 7시 반까지 20시간 동안 한 가지 공작에 전념했다. 그는 신년 오후 5시 반에 10여 명의 민주인사와 당내 책임자를 불렀고, 6시 반에는 그들과 함께 中央人民政府가 거행하는 團拜會에 참가했다. 여기서 毛澤東은 대규모의 ‘반대탐오, 반대낭비, 반대관료주의의 투쟁’을 선포했다. 단배회에 참석했던 많은 당정관계의 부장과 부부장들은 좌불안석이 되었고 끝나자마자 해당기관으로 돌아가 ‘三反’ 투쟁을 시작했다. 이후 毛澤東은 매일 거의 20여 시간 동안 ‘三反’운동에 몰입했다.⁷⁷⁾

74) 胡喬木, 「談思想改造」(1951.11.20), 『胡喬木文集』 2, 北京: 人民出版社, 1993, 345~347, 355~368쪽.

75) 王文, 앞의 글, 96쪽.

76) 當代中國研究所 編, 앞의 책, 864~865쪽.

77) 逢先知·金冲及 主編, 앞의 책, 210~213쪽.

원래 ‘知識分子思想改造運動’의 초기 방식은 비교적 온건했다. ‘三反’ 운동이 급속히 과열되자, 중공중앙은 1952년 1월 22일에 “교육계, 문예계의 사상개조 학습을 아직 시작하지 않는 곳은 마땅히 ‘三反’으로부터 시작하고, 이미 개시한 곳도 마땅히 ‘三反’으로 전환하여 ‘三反’투쟁에서 부르주아 사상 문제를 해결한 뒤에 원래 정한 계획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⁷⁸⁾ 다음날에는 毛澤東이 문화교육기관에도 ‘大老虎’(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인물)를 찾아내라면서 ‘打虎(반부패)’ 지표를 하달했고, 1952년 1월 28일에는 “각 단위의 수장이 회의를 개최해서 부패분자의 숫자를 규정하고 직접 부패분자를 공격하는데, 지금 정해진 숫자보다 적을 수는 없다.”고 단정했다.⁷⁹⁾

이후 北京에 있는 中國人民大學과 燕京大學을 비롯한 각 대학에서 ‘三反’운동의 일환으로 ‘知識分子改造運動’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고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비록 3월 3일 周恩來가 “사상개조운동은 장기적인 것으로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북경대학과 칭화대학은 조금한 정서를 곧바로 억제할 것”을 지시했지만,⁸⁰⁾ 3월 13일 중공중앙은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경의 경험을 전국 각지에 확산시킬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하달했다. “첫째, 학교에서 진행되는 ‘三反’운동은 학생들에 의지해서 교사를 추동하고, …… 각종 부르주아 사상을 비판하고 타격해야 한다. 둘째, 운동은 기본적으로 北京의 경험을 운용

78) 「中共中央關於宣傳文教部門應無例外地進行三反運動的指示」(1952.1.22.),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3,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2, 49~52쪽.

79) 毛澤東, 「關於‘三反’鬪爭展開後要將注意力引向搜尋‘大老虎’的電報」(1952.1.23.), 「轉發北京市打虎經驗的批語」(1952.1.28.), 『建國以來毛澤東文稿』3, 87~88, 111쪽.

80) 當代中國研究所 編, 『中華人民共和國史編年, 1952年卷』,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2009, 144쪽; 王炳林 等, 『學習的力量 - 中國共產黨學習活動紀實』,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4, 207, 209~210쪽.

하지만, 구체 정황에 비추어 새로운 경험을 창조한다. 셋째, ‘三反’사상투쟁에서 교장, 저명한 교수와 민주인사로 정치사상에 문제가 있지만 쉽사리 ‘過關(요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는 중앙의 지시를 받은 뒤에 진행한다.” “여섯째, 학교 삼반운동에서 간첩혐의자 가운데 정치와 역사 과목을 담당하는 사람은 수업을 정지하거나 직무를 바꾼다. 일곱째, 일부 지구에서는 ‘삼반’ 중 교수 자살 사건이 발생했는데, 각지는 이에 대해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방지해야 한다.”⁸¹⁾

그러자 중국 각지에서는 중공중앙의 지시에 입각해서 ‘운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예컨대 華東局은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黨委 선전부장 회의를 거쳐 대학교 ‘三反’과 사상개조공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학교의 三反운동은 마땅히 사상개조를 주로 해서 기관의 三反과 구별한다. 사상개조는 학교의 院系 조정과 교육개혁 준비의 필요조건이 된다.” “반드시 ‘사상은 엄격히 비판하고, 조직처리는 관대하게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貪污分子에 대한 처리와 반혁명분자에 대한 처리 외에는 관대하게 처리하고 교원의 행정처분은 그 총수의 2%를 초과하지 않는다.” “처음 시작한 山東大學과 福州大學은 2주 정도만 수업을 중지하고, 上海의 2차로 진행 중인 5개 대학은 매일 2시간과 반나절 운동을 하고 운동이 고조되었을 때에 비준을 받고 몇일 수업을 쉬도록 한다.”⁸²⁾

5월이 되자 중공중앙은 北京 각 대학의 부르주아 사상 비판운동이 커다란 효과를 거두었고 각지 대학교의 ‘三反’운동도 중공중앙의 3월 13일 지시에 따라 부르주아 사상 비판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며 운동을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했다. “대학교 교수의 정치정황과 인사

81) 「中共中央關於在高等學校中進行‘三反’運動的指示」(1952.3.13.), 『中國共產黨宣傳工作文獻選編, 1949-1956』, 學習出版社, 1996, 335~337쪽.

82) 「華東局宣傳部關於學校‘三反’運動基本情況及今後工作布置的報告」(1952.5.5.), 『中國共產黨宣傳工作文獻選編, 1949-1956』, 362~367쪽.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中層’ 청산을 진행하고 학교 개혁의 기초를 갖춘다. 北京과 天津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60-70%의 교수가 필요한 자아 검토 이후 즉각 ‘過關’할 수 있고, 15-25%의 교수는 적당한 비평을 경과한 뒤에 다시 ‘過關’하며, 3% 정도는 반복된 비평검사 이후 ‘過關’해야 하며, 2%정도만이 ‘過關’할 수 없고 적당한 처리가 필요하다.” “부르주아 사상 비판운동이 완료된 뒤에는 극소수의 증점학교를 선택해서 간부역량을 집중하여 3주 정도의 ‘中層’ 청산공작을 실시한다. 이때 강요가 아니라 각각의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공산당의 위신이 제고되고 교수와 학생들의 정치각오가 제고되며, 이러한 기초 위에 고등교육의 개혁이 관철될 것이다.” “올해 여름방학 전에 전국의 주요대학에서 ‘中層’ 청산공작이 완료되고 나머지도 겨울방학까지는 끝내도록 한다.”⁸³⁾ 劉少奇도 5월 5일 추가지시를 내렸다. “中南局의 대학상황은 매우 복잡해서 학교 성원에 골간이 적고 영도가 약하며 학교 경제권은 구인물이 장악하고 있다. …… 우선 사상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에 대오를 분류하고 단결을 실행하고 다수를 쟁취하여 소수를 타격하는 삼반운동과 사상개조의 계획을 제정한다. …… 2% 정도 ‘過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부교수 이상은 中南局의 비준을 엄격히 집행하며, 원장과 저명한 교수는 中央의 비준을 받는다. …… (劉少奇의 추가) 수업중단이 1주일 이상이 되면 中央局의 비준을 받도록 하라.”⁸⁴⁾ 이상과 같은 지시내용들을 보건대, ‘知識分子改造運動’의 주요 목적은 중국공산당이 접수한 대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개조해서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공중앙은 ‘三反’운동과 결합해서 이루어진 ‘知識分子改造運動’이

83) 「中共中央關於在高等學校中批判資產階級思想運動和清理‘中層’工作的指示」(1952.5.2.),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3, 174~178쪽.

84) 劉少奇, 「關於思想改造問題報告提綱」(1952.5.), 『建國以來劉少奇文稿』 4,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5, 192~194쪽.

어느 정도 결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대학교의 완전한 장악을 위해 “三反”, ‘思想改造’와 ‘中層’ 청산 이후, 대학생 가운데에서 10%를 입당시키고 교직원에서 3%를 입당시키며, 학교교육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진지를 공고히 하고 학교교육의 개혁공작을 관철하여 국가를 위해 건설인재를 배양할 것”을 지시했다.⁸⁵⁾ 이어서 1952년 6월 15일에는 “각지 당 조직은 7월 초순에 三反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총결을 내려서 中央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⁸⁶⁾ 教育部는 10월 7일 ‘知識分子改造運動’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성 대학과 재경, 예술원교는 1952년부터 1, 2, 3학년 순서에 따라 ‘신민주주의론’과 ‘정치경제학’을 개설하고, 각 종류의 고등원교와 전수과는 1953년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기초’과를 개설하며, 이론연구와 선전공작에 종사하는 동지들은 대량의 이론교육문장을 저술하고 마르크스주의와 毛澤東사상을 선전 보급하도록” 지시했다.⁸⁷⁾

IV. 歷史學者들의 改造運動

胡喬木은 1951년 11월 20일에 周恩來와 劉少奇 등의 지시들을 총괄하여 “첫째, 學習. 둘째, 批評과 自我批評. 셋째, 實踐.”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는 ‘知識分子改造運動’의 思想改造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자 각

85) 「中共中央關於在‘三反’運動的基礎上進行整黨建黨工作的指示」(1952.5.30.),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3, 199쪽.

86) 山東分局은 7월 말까지 보고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劉少奇, 「中央同意山東分局延期上報關三反運動全面總結的于電報」(1952.7.8.), 『建國以來劉少奇文稿』4, 303쪽.

87) 「關於全國高等學校馬克思列寧主義, 毛澤東思想課程的指示」, 吳建國·陳先奎·劉曉·楊鳳城 主編, 앞의 책, 28쪽.

대학에서는 周恩來의 지시와 그 후속으로 나온 다른 공산당 지도자들의 지시들을 소그룹을 짜서 며칠간 연구한 후 ‘批評과 自我批評’의 방법을 교수들의 ‘죄 많은 과거와 부르주아 사상’의 분석에 응용했지만, 실제 운동은 온건한 방식으로 완만하게 진행되었다.⁸⁸⁾

이러한 상황은 1952년 1월 1일 毛澤東이 주관한 신년 團拜會에서 급변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中國人民大學 부교장 胡錫奎(1896-1970)는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학교 핵심인사들을 소집하여, “毛澤東이 대규모의 반탐오, 반낭비, 반관료주의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北京의 각 대학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는 ‘知識分子改造運動’이 ‘三反’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과거 중국공산당이 각종 ‘운동’을 전개할 때에는 黨組會나 黨의 常委會를 개최해서 그에 관해 연구를 한 뒤에 시작했는데, 이때는 ‘탐오, 낭비, 관료주의’에 대해 한마디의 해석도 없이 毛澤東의 다그침에 따라 갑자기 과격하게 전개되었다. 毛澤東은 1월 23일 ‘三反’운동의 공격대상의 숫자를 하달하면서 매 단위마다 ‘必成數(필수숫자)’와 ‘期成數(기대숫자)’를 확정할 것을 지시했다. 人民大學의 경우에도 공산당사 연구자 李新(1918-2004)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 尹達(1906-1983)의 반대 아래 운동은 충동적으로 진행되었다.⁸⁹⁾ 이제 공산당은 대학을 자본주의 사상의 온상으로 지목했고, ‘三反’운동의 주요 공격대상이 된 대학교수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사상개조를 해야 할 대표적인 집단으로 자리잡으면서 ‘過關’(기준에 도달할 것)과 “洗澡”(사상청산)이 요구되었다.

당시 대학교에서 진행된 ‘知識分子改造運動’의 구체적인 양상은 시카고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운동 당시 燕京大學과 南開大學에서 교

88) Wu Ningkun, 심재석 옮김, 앞의 책, 34~35쪽.

89) 李新, 『流逝的歲月, 李新回憶錄』, 山西人民出版社, 2008, 309~310쪽.

수직을 담당했던 巫寧坤(1920-2019)의 회고록에서 잘 알 수 있다. 상당히 길지만 그의 기록을 살펴보자.

北京의 燕京大學에서도 학생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학장과 교수들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한 소그룹에 동원되었다. 총장실에서 빼내온 서류가 도서관의 이곳저곳에 살포되고, 학생운동원들은 문화침략과 혹 있을지도 모를 스파이 활동의 증거를 찾기 위해 서류들을 살살이 검토했다. 총장은 물론 각 단과대학 학장, 학과장 등 모든 저명한 학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친미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적 과거를 반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공개회의에서 격렬히 비판을 받았으며 그 중 고집을 꺾지 않은 몇 명은 잘못을 반성하고 실토하도록 독방에 감금당했다. ‘思想改造’의 다음 단계는 ‘批評과 自我批評’이었다. 교수들은 처음에 세 명씩 그룹을 지어 만났다. 각자 다른 두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하면 미비한 점이나 잘 맞지 않는 점을 서로 검토했다. 그런 다음 교수들은 더 큰 교수그룹에 나가 자기 얘기를 했다. 1952년 봄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사상개조를 목표로 행하는 그룹별 정치학습이 반드시 요구되었다. 교수들은 차례로 돌아가면서 혁명의 도정에서 저지른 과거의 탈선이나 느린 정치발전에 대해 실토하며 자신들을 괴롭혔다. 교수단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 교수들은 매 회의 때마다 문서 하나를 큰 소리로 몇 번씩 읽었다. 그 다음에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교수들에게는 마르크스주의의 기초 원리를 익히는 의무적인 저녁학습이 있었다. 한 젊은이가 마르크스 철학에 관해 필기한 것을 읽어 주면, 교수들은 그 내용을 기록해서 과정이 끝난 후에 있을 시험에 대비해 암기해야 했다.⁹⁰⁾

한편 燕京大學의 사상개조운동을 총괄했던 翦伯贊은 巫寧坤을 자신의 집으로 소환해서 그에게 “고백을 강요하는 것은 당의 방침과는 어긋나

90) Wu Ningkun, 심재석 옮김, 앞의 책, 34~37, 41, 44, 55~56쪽.

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특히 빠져 있는 중요한 부분을 더 첨가시키시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때 巫寧坤은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위협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뺏속까지 공산주의자였던 翦伯贊은 진심으로 이 우파지식인을 개조해서 국가건설에 동참시키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 이후 南開大學으로 이직한 巫寧坤에게 매일 밤 벌어지는 심문은 그 ‘포레’의 소그룹이 주도했다. 그들 가운데에는 1946년 北平 輔仁大學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1949년 9월 范文瀾의 역사연구실에서 연구생이 되었고 1950년에는 南開大學에서 직장을 얻은 來新夏(1923-2014)가 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巫寧坤의 친절한 이웃이었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질문했다. “燕京大學에서 학생들 사이에 조직된 반혁명 집단과 관계가 있었지요. 당신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오의 어둠』과 『1984』 같은 반동적인 책을 읽고 토론했어요. 당신은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1951년 여름, 한국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중국에 돌아온 이유는 뭘니까?” 巫寧坤의 눈에는 來新夏도 공산당원의 자격을 얻으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젊은이들의 하나에 불과해 보였겠지만, 신중국의 건설에 갓 참여한 來新夏로서는 당연한 노력이었을지도 모른다.⁹¹⁾ 당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知識分子改造運動’의 핵심 참가자이자 주요 대상이었다.

한편 上海 復旦大學의 사상개조운동은, 華東文教委員會 學習委員會가 1952년 1월 22일자 중공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華東革命大學의 간부들을 파견하여 운동을 이끌도록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1월 26일 復旦大學은 교장 陳望道(1891-1977)를 주임으로 하여 精簡節約及思想改造學習委員會를 조직하고 각 학과에 학습소조를 만들었다.

3월 13일에는 중공중앙의 지시에 따라, 華東行政區 教育部 부부장 陳其五(1914-1984)는 3월 20일에 ‘知識分子改造運動’을 더욱 가열차게

91) Wu Ningkun, 심재석 옮김, 위의 책, 42, 81~85쪽.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3월 3일 周恩來의 지시와 復旦大學에서 발행했던 중문과 교수 劉大杰(1904-1977)의 투신자살 미수사건을 염두에 두고, “대 부패범에 대해 쓰는 방법을 대다수 사상착오 동지에게 할 수 없다. 학교의 ‘三反’운동은 엄숙하고 자각적인 비평과 자아비평이며, 균중성의 사상개조운동이다.”라고 일견 운동의 과격화에 제동을 거는 듯한 언급을 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주로 부르주아 사상과 프롤레타리아트 사상의 투쟁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뿌리 부르주아지 사상은 없으며, 부르주아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사상의 주요 장애로 철저히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⁹²⁾ 며 중공중앙의 통일전선 정책을 부정하는 과격한 주장을 밝혔다. 이것은 당시 중국공산당의 중하급 간부들과 공산당 知識分子들 대다수의 공통된 입장이었다.⁹³⁾

이어서 3월 31일에는 上海시장 陳毅가 華東區의 25개 高校가 참여한 제2차 사상개조동원대회를 復旦大學에서 개최하고 復旦大學 ‘三反’운동의 초보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일차적인 인식 제고가 이루어졌다. 둘째, 균중을 보편적으로 동원했다. 셋째, 고백과 검거를 보편적으

92) 葛劍雄 編, 위의 책, 206~207쪽.

93) 당시 공산당 중하급간부급 당원들은 1949년 9월 政治協商會議 이래 신정부의 요직에 국민당 인사와 보수적인 사람들이 포함된 것에 반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延安에서 양성된 신진 공산당 知識分子들은 민족 부르주아지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역할에 목말라했다. 이들 가운데 于光遠과 王惠德이 艾思奇와 許立群(楊耳), 吳江을 동원하여 中宣部가 발행했던 〈學習〉잡지 1952년 1-3기에 민족 부르주아지의 역할을 부정하는 글을 연달아 게재했다. 그러자 많은 자본가들이 두려움을 표명했고, 毛澤東은 당의 통일전선 정책을 부정한 것이라고 이들을 비판한 사건이 발생했다. 徐鑄成, 앞의 책, 202쪽; 「中共中央批轉中央宣傳部〈關於〈學習〉雜誌錯誤的檢討〉」(1952.4.4.),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3, 144~148쪽; 劉少奇, 「關於思想改造問題報告提綱」(1952.5.), 『建國以來劉少奇文稿』 4, 234~235쪽; 謝泳, 「延安知識分子在新意識形態建立中的角色-以紀〈學習〉雜誌事件爲例」(2000), 『書生的困境, 中國現代知識分子問題簡論』,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121, 129~132쪽.

로 전개했다. 넷째, 대량의 부패 사실을 들춰내서 참가자 가운데 57%가 부패행위를 고백했다.” 이어서 陳毅는 ‘三反’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고 선포하고, “사상개조는 ‘三反’의 발전이며 보호정책을 곡해할 수 없다. 장차 ‘三反’과 사상개조는 밀접히 결합한다.”⁹⁴⁾ 라고 하면서 ‘知識分子思想改造運動’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復旦大學 당국은 학자들에게 ‘過關’(기준에 도달할 것)과 “洗澡”(사상 청산)를 요구하면서 ‘知識分子改造運動’을 여름방학 직전까지 진행했다.

한편 復旦大學 역사학과는 1952년 1월 26일 학교당국의 지시에 따라 ‘知識分子改造運動’을 위한 역사학과 小組를 조직했다. 그 구성원은 주인이자 經學史 연구자인 周予同(1898-1981), 부주임이자 갑골학자 胡厚宣(1911-1995)에, 朱永嘉(1931-) 등 3명의 학생대표를 포함한 10여 명의 조원으로 이루어졌다.⁹⁵⁾ 이하에서는 復旦大學의 역사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좌파 周谷城, 중도파 胡厚宣, 우파 朱激 세 사람의 경우를 각각 ‘개조운동’의 방법인 自我批評, 集團批評, 總結의 단계에 따라 살펴보겠다.

周谷城(1898-1996)은 1922년 毛澤東의 요청으로 湖南 長沙의 自修大學에서 교사로 활약했고 1942년부터 陳望道의 소개로 復旦大學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中國通史』(1939), 『世界通史』(1949)와 유물사관을 소개한 대표적인 좌파인물이었으며, 1949년에는 復旦大學 교무장이자 上海市歷史學會 회장에 취임할 정도로 신중국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⁹⁶⁾

94) 葛劍雄 編, 앞의 책, 208쪽.

95) 葛劍雄 編, 앞의 책, 199~200쪽. 학생대표 朱永嘉는 1950년에 復旦大學 입학했고 졸업 뒤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문화혁명 당시에는 上海 4인방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활약했고 현재도 新左派의 원로로 ‘烏有之鄉’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96) 武克全, 『“縱論古今橫說中外”的學術大家 - 周谷城傳』(2002), 余子道 主編, 앞의 책, 103~115쪽.

그런 그의 自我批評을 보면 너무나 세세하고 날것이었다. “대혁명실 때 이후 항일전쟁 이전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新雅飯店에 가서 차를 마셨고, 평소 옷과 장식에 관심을 두고 옷이 낡으면 곧 버렸다. 평소 관료주의로 책임을 지지 않았고, 내 이익만 추구했다. 친구들에서 대해 성실하지 않아서 뒤에서 비평했다. 학문에 대해서도 충실하지 않아, 『中國通史』를 편찬할 때 『25사』를 요약했고 『世界通史』(1949)는 수십 종의 책을 이리저리 베끼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수업할 때에는 책임감이 없이 제대로 모르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수업을 너무 많이 빼먹고 수업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참고서를 찾아보도록 독촉하지 않았다. 스스로 유명한 교수라고 자부하고, 매일 신문 잡지나 보고 책을 다 읽지 않았다. 『學習』잡지는 한권도 사지 않았다. 나는 개인주의자였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비웃으며 오만했다.” 이것은 군중 앞에서 자신의 사생활과 속내를 스스로 밝힘으로써 자존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개체의 존재를 말살하는 첫 번째 행위였다.

두 번째 연극은 4월 30일에 小組와 학과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集團批評에서 실행되었다. 동료들은 周谷城이라는 역사학과의 거물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여전히) 사실이 부족하며, 사상의 위해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상은 쓰디 부르주아적이며,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면서도 自我批評이 불충분하다.” 그는 더 많은 자기비하를 요구하는 군중에게 부응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털어놓았다. “저작 동기는 교수직을 굳건히 하고, 重慶에서 熊十力(1885-1968)을 비판한 것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였다. 수업할 때 학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출석을 부르지 않았으며, 교육은 연구에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동료에 대한 태도는 불성실했고 동학과 귀찮은 일이 없기 위해 정면에서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다. 부르주아지의 악습에 오염되어 유태인 아파트에 살았다.” 周谷城은 毛澤東과 편지

를 주고받는 친구였고,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은 큰 뒷배였다. 그는 앞으로 “唯我自私를 극복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다.”며 쉽사리 관문을 통과(過關)했다.⁹⁷⁾

다음 胡厚宣(1911-1995)은 北京大學 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표적인 부르주아 역사학자인 傅斯年(1896-1950)의 소개로 1934년 安陽 殷墟발굴단에서 활동했고, 1947년부터 復旦大學에서 갑골학을 가르친 저명한 갑골학자였다.

그런 胡厚宣이 3월 6일 自我批評을 시작했다. “해방 전에 갑골문을 매매했고, 銀元·달러·황금을 샀고, 고리대를 놓았다. 책을 내고 문장을 발표한 것은 개인적인 冥利를 추구한 것이다.” 그러자 小組는 그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너는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친구지간에 돈을 빌려줄 때에도 이자를 계산했다. 책을 사는 것도 연구뿐만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갑골을 매매하며 적지 않은 이익을 취했다.” 이러한 비판은 일생동안 그를 괴롭혔던 것 같다. 나중에 胡厚宣은 자신이 北京과 天津에서 갑골문 관련 자료 10,000건을 구입했지만, 원가로 북경도서관에 건네기로 했었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⁹⁸⁾

그러나 胡厚宣은 중국공산당의 신뢰를 받는 周谷城이 아니었다. 그의 自我批評과 批評은 4월 26일 재개되었다. “정치인식은 매우 모호하며 국민당의 반동본질을 깨닫지 못했고, 공산당은 중국국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협소한 전문성을 중시하며 순수학문을 주장하는 전문가 사상을 갖고 있었고 무의식적으로 반동으로 기울어 학술구국의 길로 갔다. 나는 사료를 중시하며 사상과 이론이 없다. 翦伯贊(1898-1968), 侯外廬(1903-1987), 吳澤(1913-2005)의 연구는 전부 사료를 틀렸다고 무시했

97) 葛劍雄 編, 앞의 책, 200~201, 210, 236~237쪽.

98) 胡厚宣, 「人生漫漫爲“甲骨”」(2006), 余子道 主編, 앞의 책, 283~289쪽.

다.” “呂振羽(1900-1980)와 范文瀾(1893-1969) 등의 저작을 참고하는 것을 부정하고 홀로 판단해서 재료를 보충하여 나열했다. 전문주제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고 참고서를 잔뜩 나열한다. 해방 이후 이론을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결합하지 못하거나 너무 생경하다. 이론 수양이 부족해서 무의식 중에 프롤레타리아트 사상이 아닌 것에 찌들었다.” “경각심이 적어 (천주교 신부인) 方豪(1910-1980) 등과 왕래했다.” 이제 그는 공산당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다. 학문은 인민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위해 생활해야 하고, 역사학자는 이론학습을 통해 이것을 체화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토지개혁 이후 공산당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제고되어 과거를 비판하고 진지하게 개조하고자 결심했다. 순수학문을 추구하는 전문가 사상을 포기하고자 한다. 정치성과 투쟁성을 강화하고 ‘적과 아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毛澤東 주석 저작의 학습을 강화한다. 자존심을 낮추고 늘 비평과 자아비평을 한다. 한 명의 좋은 인민교사가 되고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胡厚宣은 곧바로 ‘관문을 통과(過關)’할 수 없었고, 한차례 더 군중들의 집중적인 성토를 받아야 했다. 그는 ‘운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6월 11일에 재차 검사를 받으며 우선 자신의 학술적 반동성을 철저히 비판한다. “胡適과 傅斯年의 영향으로 考據와 순수학술을 강조하고, 정치를 적게 말하고 독서를 많이 하며 ‘주의를 소홀히 하고 문제연구를 주로 했다.’ 봉건지주의 漢學 개량주의의 今文學을 제국주의의 實驗主義와 결합해서 반봉건·반식민지 부르주아 대지주의 이익을 대표한 학술의 상품화이자 일종의 독점자본이었다. 과거를 중시하고 현재를 가벼이 보며, 사소하고 세세한 것의 종합을 중시하고, 사료를 중시하며 관점을 경시했다.” “사료 지상주의로 수집과 정리에 머물렀다.” 그는 이제야 중국공산당이 비판하는 역사학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자신의 과거 연구를 총체적

으로 부정했다.

胡厚宣은 중국공산당이 요구하는 새로운 역사학 방법론을 자신도 추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우선 胡適과 傅斯年의 반동본질을 청산하고, 北京大學과 歷史語言研究所의 나쁜 영향을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결점을 정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주석 사상의 학습에 박차를 가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정치성과 투쟁성을 강화하며 교학을 잘하고 정확한 관점으로 업무를 개선해서 영도자의 분배에 복종하고 군중과 연계하며 비판과 자아비판으로 부단한 진보를 쟁취한다.”

이제 6월 16일 復旦大學 역사학과의 동료들은 胡厚宣에 대한 總結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올바름을 천명한다. 史悠中의 비판은 당시 서구 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학자들에 대한 동료학자의 질투심을 보여준다. “고고학 자체는 제국주의를 위해 복무한다.” “외국인이 중국사를 하고 중국통사를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이 (자기) 책을 사면 좋아하는 것은 노예 사상이며 캐나다에 가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미시건 대학을 졸업한 고고학자 潘璐基(1904-1953)는 “고고학은 모두 제국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국주의가 그것을 이용해서 침략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사람들의 비난을 수용한 뒤에, 자신의 미국유학 사실을 방어하기 위해 인민을 위한 고고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결국 6월 20일 胡厚宣은 “자신의 동기는 본질적으로 반동적이고 매판적이었으며, 제국주의의 지휘를 받은 殷墟 발굴은 미 제국주의자의 돈으로 中央研究院이 주관한 것으로 결국 침략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자신의 과거 연구 활동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서야 ‘過關’할 수 있었다.⁹⁹⁾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朱激(1893- ?)다. 그는 미시건 대학의 장학

99) 葛劍雄 編, 앞의 책, 201~202, 230~233, 244~250쪽.

금을 받고 영국유학을 거쳐 1945년부터 復旦大學에서 영문학과 세계사를 시작한 전형적인 우파 지식인이었다.

그의 처음 自我批評은 코미디였다. “나는 책을 빌리고 반납하지 않았다. 공용 시험지와 강의용 종이를 사용했다. 영국에서 학교에 보낸 책 세권을 李佩가 오해해서 내게 보냈는데 집에 3년간 놔뒀다.” 자신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미국 물질문명은 도시에 한정되었고 시골에는 수도, 전등이 없고 파리가 들끓는다. 흑인을 천시한다.” “이 미국 지도는 대륙에 이거 한 부분이다.”라는 변명도 추가한다. 물론 공산당이 원하는 자기반성도 덧붙였다 “이론에 생소하고 노력이 불충분하며 정치수준이 낮다.” 그가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희극적 自我批評으로는 관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4월 24일 그는 보다 자세히 自我批評을 했다. “아버지는 湖南의 知縣이었다.”라고 자신의 출신계급을 밝힌 뒤에 자신의 정치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자인했다. “항전 이전에는 反帝였고 전시에는 (장개석 정부를) 점차 반동정부로 인식했다. 내전이 일어나자 국민당을 증오했지만 공산당에 대한 인식은 모호했다. 혁명을 동정했지만 스스로 연결하지 않고 정치에 무관한 것이 고상하다고 생각했다.” “공산당이 경제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믿지 않았고” “抗美援朝 시 필승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자신의 학문적 입장도 반성했다. “노동인민을 중시하지 않으며 화평공존을 믿었다. 교육방법은 주입적이고 교재선택이 주관적이며 낡은 관점과 언어를 사용하고 참고서와 교과서는 해방 전에는 영문을 채택했다.” “사료를 중시하고 분석을 중시하지 않는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사상이 “봉건적 淸高주의, 부르주아지의 개인주의, 군중과 현실에서 벗어난 반동적인 개인주의로 적극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朱濤의 개조 개조선언은 너무 피상적이었다. “이

문을 학습하고, 同學의 의견을 흡수해서 부르주아 사상을 개정하고 개조를 진지하게 요구한다.” 따라서 小組는 그의 “우경사상이 엄중하다.”고 평가했다.¹⁰⁰⁾ 현재로는 朱澗가 반복된 비평검사 이후 ‘過關’할 수 있는 3%에 해당되었는지, ‘過關’할 수 없고 적당한 처리가 필요한 2%에 들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朱澗가 ‘過關’할 수 없는 사람들에 포함되었어도 그의 처리는 華東局의 비준을 받아 처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운동’의 학생대표였던 朱永嘉의 회고처럼, 이제 復旦大學 사학과와 분위기는 그가 1950년 復旦大學에 진학했을 때 사학과 전체 학생과 교수들이 과주임 周予同을 비롯한 과 교수들과 함께 復旦大學 후문의 來喜飯店에서 회식을 하던 그런 동료의식으로 되돌아 갈 수 없었다.¹⁰¹⁾ 그리고 復旦大學의 역사학자들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학술을 위한 학술’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학술’ 활동에 나서야 했다.¹⁰²⁾

V. 결론

이른바 ‘중국 해방’ 초기에 전개된 사적 유물론과 ‘社會發展史’에 관한 대대적인 학습운동은 중국 대륙의 절대 다수 지식인들이 자원해서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일도록 하려는 공작이었다.¹⁰³⁾ 이어서 ‘知識分子改造

100) 葛劍雄 編, 앞의 책, 205~206, 211, 227~228쪽.

101) 朱永嘉, 「潘硯基老師家人的一次來訪」, 2017.10.8.(http://blog.sina.com.cn/s/blog_5ce3afd90102xo2e.html)

102) ‘학술을 위한 학술’은 부르주아 사상의 교육진지에서의 표현으로 인정되어 비판과 검토의 증점 문제였다. 부르주아 사상의식을 갖고 있는 교육자가 제일 좋아하고 높이 외치는 것은 ‘초계급’, ‘초정치’, ‘순수과학’과 ‘순수학문’의 논조였다. 于風政, 앞의 책, 235~236쪽.

運動'은 기존 지식인들을 혁명사상의 제조자이자 충실한 대변인으로 만들고, 새로운 知識分子들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체제와 대학개편을 위한 사전 정치작업으로 전개되어 1952년 하반기에 매듭지어졌다.

기존 중국 대륙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운동들이 사회주의 중국의 건설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운동은 비록 과격하고 지나친 요구, 간단한 방법 및 사상비판을 정치비판으로 만들어서 일부 知識分子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등의 결점을 갖고 있었지만, 사상개조를 통해 많은 知識分子는 사상 각오를 제고했고, 비평과 자아비판의 전개를 배웠고,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 반동사상 및 부르주아 부패사상을 비판했고, 반동적인 정치사상의 영향을 자각적으로 제거했고,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사상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많은 知識分子들과 광대한 노동자·농민이 함께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신하여 신중국을 건설하고 공업화를 실현하는데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¹⁰⁴⁾ 그리고 이 운동의 대상이었던 역사학자들도 ‘역사학을 위한 역사서술’,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위한 학술활동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知識分子’로 자신을 바꾸어나가는 첫걸음을 시작했다.¹⁰⁵⁾

이후 역사학은 중화인민공화국 학술사상사 발전의 첫 번째 시기라고 불리는 1949년부터 1956년까지 몇 차례의 ‘운동’과 ‘학술토론’을 거치면서 자신의 학문적 성격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지도 아래 정치를 위해 복무하는 顯學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했다.¹⁰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毛澤東은

103) 리쩌허우, 김형중 옮김, 『중국현대사상사론』, 서울: 한길사, 2005(1987), 67~69, 205, 257쪽.

104) 吳建國·陳先奎·劉曉·楊鳳城 主編, 앞의 책, 98쪽.

105) 최근 인민공화국 시기 정치권력이 ‘지식인’을 국책학술기관으로 수용시켜 ‘지식노동자’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로 역사학자 顧頡剛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하주형, 앞의 글.

106) 李明山·左玉河, 앞의 책, 10~11쪽. 필자는 이 시기에 역사학을 전반적으로 개조

지식인들과 역사학계에 대해 거둬 불만을 토로했다. 1957년 7월 8일 그는 上海市 각계 인사 회의에서의 강연에서 “하나는 증문과, 또 하나는 역사학계에 유심론자가 가장 많다.”면서 역사학자들의 개조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공산당에 대해 복종하지 않는 지식인들을 위협했다. “진시황은 468명의 유학자를 파묻었지만, 우리는 46,000명을 묻었다.” “우리를 진시황이라고 욕하고 독재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관되게 인정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우리는 더 보충해야 한다.(큰 웃음)”¹⁰⁷⁾ 지식인과 역사학계에 대한 그의 비난은 문화혁명을 거쳐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비난의 핵심은 지식인들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정권의 충실한 도구로 활동하면서 추호도 그 역할을 의심하지 않는 존재로 자신을 끊임없이 확립하지 못하는가였다. 그래서 학술사상 비판운동은 갈수록 심해졌고 광범해졌고, ‘좌경 사상의 지도 아래 정치 비판운동으로 변화했으며, 정치야심가와 음모가들이 이를 이용하게 되었다.¹⁰⁸⁾ ‘知識分子改造運動’은 바로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 정치운동의 시발점이었다.

1949년 이후 중국공산당의 ‘知識分子政策’에 의해 지식인은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지식노동자를 의미하는 ‘知識分子’로 변모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지식인들은 공개적인 대중비판과 여론을 통한 감정적 공격 및 고립화로 무력해져서 간단한 저항조차 할 수 없게 길들여졌다. 錢鍾書의 부인이자 당시 清華大學 외국어과 교수로 운동을 직접 경험한 楊絳(1911-2016)은 소설 『洗澡』 3부를 통해 ‘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洗澡’의

해서 공산당의 목적에 능동적으로 종사하도록 만들기 위한 시도들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107) 毛澤東, 「在成都會議上的在講話提綱」(1958.3.22.), 『建國以來毛澤東文稿』 7,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2, 118쪽.

108)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은 이러한 상황이 1979년 중공 11계3중전회 이후에야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李明山·左玉河 主編, 앞의 책, 16쪽.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고 그것이 지식인들에게 준 영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자신을 회화화하고, 사생활을 드러내서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한다. 이러한 자기 모욕식의 방법을 통해 먼저 ‘過關’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관문을 통과해야 할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 이것은 인격모독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 존엄을 말살하는 것이다.”¹⁰⁹⁾ ‘洗澡’의 조악하고 폭력적인 운동방식은 지식인들의 감정을 손상시켰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군중운동의 압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다.¹¹⁰⁾

다만 여기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지식인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은 20세기 중반 냉전이 시작되면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이때 자유진영의 지식인들은 소위 양적 데이터로 뒷받침된 객관적 평가가 담보된 작업을 강조한 반면,¹¹¹⁾ 공산진영의 지식인들은 계급의식에 바탕을 둔 작업을 절대화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폭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운동의 반복적인 충격 아래, 중국의 지식인들은 의혹, 방황, 자책, 굴욕, 불만, 자비, 공포, 비판, 절망, 자기보호 등의 소극적인 심리를 반복하면서 독립정신을 상실했고, 점차 ‘知識分子的 工農化’가 이루어졌다. 5·4운동의 산물이었던 중국 근대 지식인 집단의 궤멸은 5·4운동이 중국에 부여한 독립정신의 소실이었던 것이었다.¹¹²⁾

당시 역사학자는 근대적 지식인에서 사회주의적 知識分子로 변신할 것을 요구받았다. 또한 역사학은 근대적 지식의 축적에서 사회주의 리얼

109) 楊絳, 『洗澡』, 北京: 三聯書店, 1988.

110) 于風政, 앞의 책, 208~211쪽. ‘知識分子改造運動’ 당시 上海에서 있었던 顧頡剛의 비판적 생각은 다음 논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하주형, 앞의 글, 103쪽.

111) 마이클 레이섬, 권혁은 옮김,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 서울: 그린비, 2021 (2000), 53~55쪽.

112) 于風政, 위의 책, 623, 630, 634쪽.

리즘에 입각하여 국가건설에 일조하는 지식적 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 받았다. 본고는 그 과정에서 중국의 역사학자와 역사학이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대응해나갔는지를 살펴보려는 필자의 과제의 첫 번째 성과이다.¹¹³⁾

(2021.10.30. 투고 / 2021.11.29. 심사완료 / 2021.12.15. 게재확정)

113) 필자의 과제는 근대역사학과 역사학자가 시대조류에 야합하지 않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역사학과 역사학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에 답변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의 하나이고자 한다.

[Abstract]

Intellectual reform movement and historians in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im, Eun-soo

At the beginning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should cultivate new intellectuals needed for China's revolutionary construction.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Soviet Union, they carried out many movements to transform intellectuals from 1949 to 1956. The author studi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olitical education movement" and the "intellectual transformation movement", and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the "intellectual transformation movement" aimed at historians of Shanghai Fudan University on historians. According to the history of social development,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described the legitimacy of establishing the Communist Party's political power, based on the history of class struggle, and mobilized the people to build a socialist country. At the same time, the movement is to make the existing intellectuals become the makers and loyal spokesmen of revolutionary thought, cultivate new intellectuals and prepare for the adaptation of universities. In this process, historians, through strong self-criticism and self devaluation, were attacked by public criticism and public opinion, and lost the independent spirit of intellectuals. Most historians have become tools of political power.

□ Keyword

History of social development, Political education movement, Intellectual transformation movement, MaoZedong, AiSiqi, Zhou Enlai, HuQiaomu, Zhou Gucheng, Hu Houxuan, Zhu Ao, Fudan University

[참고문헌]

1. 사료

- 『建國以來毛澤東文稿』 1,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7.
- 『建國以來毛澤東文稿』 2,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8.
- 『建國以來毛澤東文稿』 3,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9.
- 『建國以來毛澤東文稿』 7,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2.
- 『建國以來劉少奇文稿』 3-4,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5.
- 『建國以來周恩來文稿』 1,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8.
- 『建設以來重要文獻選編』 1-3,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2.
- 『中共中央文件選集』 17-18,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2.
- 『中國共產黨宣傳工作文獻選編, 1949-1956』, 北京: 學習出版社, 1996.
- 葛劍雄 編, 『譚其驤日記』,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13.
- 常任俠, 『春城紀事(1949-1952)』, 北京: 大象出版社, 2006.
- 徐鑄成, 『徐鑄成回憶錄』, 北京: 三聯書店, 1998.
- 楊建新·石光樹·袁廷華 編著, 『五星紅旗從這裡升起』, 北京: 文史資料出版社, 1984.
- 陸定一, 『陸定一文集』, 北京: 人民出版社, 1992.
- 李達, 『李達文集』 4, 人民出版社, 1988.
- 李新, 『流逝的歲月, 李新回憶錄』,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2008.
- 周一良, 『天地一書生』, 北京大學出版社, 2010.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周恩來文化文選』,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 中國共產主義研究小組, 『毛澤東集』 10, 一山圖書供應, 1976.
- 胡喬木, 『胡喬木文集』 2, 北京: 人民出版社, 1993.

- 「京津高等學校教師的一些思想狀況」, 『宣傳通訊』 1951-27.
- 「社論: 開展全國教師的學習運動」, 『光明日報』 1950.8.11.
- 「社論: 爲什麼必須改革學制」, 『人民日報』 1951.10.3.
- 梅林, 「上海解放有感: 照明自己」, 『文匯報』 1949.6.25.
- 宋雲彬, 「西湖的春天」, 『新觀察』 2-7.
- 艾思奇, 「評關於社會發展問題的若干非歷史觀點」, 『北平解放報』 1949.7.
- 翦伯贊, 「教師學習的問題很多, 主要的還是思想問題」, 『光明日報』 1950.8.11.
- 趙儷生, 「政治學習與學術研究」, 『光明日報』 1950.3.5.
- 陳垣, 「祝教師學習成功」, 『人民日報』 1951.10.27.
- 許杰, 「從今日開始」, 『文匯報』 1949.6.21.

2. 연구서, 논문 및 기타

- 桂遵義, 『馬克思主義史學在中國』,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92.
- 金冲及 主編, 『周恩來傳』,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 當代中國研究所 編, 『中華人民共和國史編年, 1951年卷』,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2007.
- 마이클 레이섬, 권혁은 옮김,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 서울: 그린비, 2021 (2000).
- Alain Roux, 畢笑 譯, 『毛澤東雄關漫道』 下,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4(2009).
- 리저허우, 김형중 옮김, 『중국현대사상사론』, 서울: 한길사, 2005(1987).
- 龐松, 『中華人民共和國史 1949-1956』, 北京: 人民出版社, 2010.
- 逢先知·金冲及 主編, 『毛澤東傳(1949-1976)』 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6.
- John Bryan Btarr, 曹志爲, 王晴波 譯, 『毛澤東的政治哲學』, 北京: 中國

- 人民大學出版社, 2013(1979).
- 謝泳, 『書生的困境, 中國現代知識分子問題簡論』,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 楊絳, 『洗澡』, 北京: 三聯書店, 1988.
- 余子道 主編, 『曦園星光 史苑流芳, 復旦大學歷史學系建系九十五周年紀念文集』,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20.
- 吳建國·陳先奎·劉曉·楊鳳城 主編, 『當代中國意識形態風雲錄』, 北京: 警官教育出版社, 1993.
- 王炳林 等, 『學習的力量 - 中國共產黨學習活動紀實』,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4.
- 王子今, 『毛澤東與中國史學』,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 Wu Ningkun, 심재석 옮김, 『대륙의 눈물(A Single Tear)』 1, 서울: 고려원, 1995(1993).
- 于風政, 『改造』,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2001.
- 陸建東, 박한제·김형중 옮김, 『진인각, 최후의 20년』, 서울: 사계절, 2008(1995).
- 李明山·左玉河 主編, 『當代中國學術思想史』, 鄭州: 河南大學出版社, 1999.
- 李承貴, 『20世紀中國人文社會科學方法問題』,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2001.
- 李曙新, 『中國共產黨理論探索成果研究(1949-1978)』, 北京: 中共黨史, 2008.
- 張靜如 主編, 『中國共產黨思想史』, 青島出版社, 1991.
- 張浩, 『新中國成立初期中國共產黨城市工作研究 - 以北京市爲個案』, 北京: 人民出版社, 2014.
- 中共中央文獻室 編, 『劉少奇年譜1898-1969』 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6.
- 本書編輯部 選編, 『中國的廣播電台』, 北京廣播學院出版社, 1987.
- 陳揚勇, 『建設新中國的藍圖 -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研究』,

-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3.
- 陳至立 主編, 『中國共產黨建設史』, 上海人民出版社, 1991.
- 陳清泉·宋廣渭, 『陸定一傳』,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9.
- 첸리쥬(錢理群), 연광석 옮김,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상, 서울: 한울, 2012.
- 肖東波, 『新中國成立初期中國共產黨執政實踐研究(1949~1952)』,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13.
- 楚序平·劉劍, 『當代中國重大事件實錄』, 北京: 和齡出版社, 1993.
- 실라 피즈패트릭, 고광열 옮김, 『러시아혁명, 1917-1938』, 서울: 사계절, 2017.
- 王文, 「建國初期知識分子思想改造運動」, 『中共黨史資料』 66, 中共黨史出版社, 1998.6.
- 王憲明, 「知識分子思想改造運動」, 朱育和·張勇·高敦復 主編, 『當代中國意識形態錄』,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1997.
- 張志讓, 「探求新知批判利用舊學與大學教育前途」, 『新建設』 1-1, 1949. 9.8.
- 蔣學模, 「對於俄國學術界成就的兩種估計」, 『學術月刊』 1957-12.
- 하주형, 「『지식인』에서 ‘지식 노동자’로 - 1950년대 일기에 투영된 顧頌剛 위상의 변모 -」, 『중국근현대사연구』 89, 2021.3.
- 朱永嘉, 「潘硯基老師家人的一次來訪」 2017.10.8.
http://blog.sina.com.cn/s/blog_5ce3afd90102xo2e.html